

# UC, 입학 사정 요소에서 SAT·ACT SAT 배제 가능성 대두

재닛 나폴리타노 UC 총괄총장이 UC계 대학 입학 사정 요소에서 대입표준시험인 SAT 및 ACT 시험 점수 반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닛 나폴리타노 총장은 지난 11일 발표한 제안서에서 2024년까지 UC계 대학 입학 사정 요소에서 SAT 및 ACT 시험 점수 제출을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이듬해부터는 사정 요소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UC의 10 캠퍼스 시스템을 위해 개발된 표준화된 평가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나섰다.

그는 "이 계획은 각 전략에 따라 어떤 학생들이 입학하고 그들이 대학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는지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만들어 낼 것이다."라며 "그것은 또한 더 많은 혜택 받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UC 교육에 대한 접근을 넓힐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제안은 최근 SAT·ACT 입학시험을 5년 동안 유지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UC교수회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재닛 나폴리타노 총장의 제안과 관련해 LA 타임스는 이날 "이 권고안은 캠퍼스가 어떻게 다른 등급에 대해 다른 입학 표준을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캠퍼스 입학사정관들은 SAT와

ACT 점수를 지원자의 평가를 돕는 유용한 도구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들 없이 수만 개의 지원서를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또 "UC가 시험 요건을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결정은 표준화 시험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UC는 지원자의 5분의 4가 SAT를 응시하는, College Board의 가장 큰 단일 대학 고객"이라고 덧붙였다.

교육 전문가들에 따르면 SAT와 ACT 시험은 부모의 인종, 소득, 교육 수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시험 준비에 대한 불공평한 접근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1,000개 이상의 대학들이 입학 사정에서 SAT와 ACT 성적을 제외시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주립대학 가운데 지원자가 가장 많은 UC가 입학 사정 요소에서 대입표준 시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다른 대학들에게도 여



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입학 사정 요소에서 SAT나 ACT 성적을 제외하는 대학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향후 대학입시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전국적으로 가장 지원자수가 많은 주립대학인 UC가 SAT·ACT 완전 제외 방침을 구체화함에 따

라 향후 SAT 시험의 입학 완전 배제가 다른 대학들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 미국 대학입시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UC계 대학에는 총 21만5,000여 명이 지원했다. 지원자가 가장 많은 캠퍼스는 로스앤젤레스였고 샌디에이고, 어바인, 버클리, 산타바바라, 데이비스 캠퍼스가 그 뒤를 따랐다.

한편 UC는 코로나19 확산으로 SAT·ACT 시험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1년 가을 지원자에 대한 이들 시험점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UC계 입학 사정에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GPA)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교육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 CSU, 가을학기도 온라인 수업



▲ CSU Fullerton 전경 © fullerton.edu

칼스테이트(CSU)계 대학들이 오는 가을학기에도 온라인으로 수업한다.

CSU의 티모시 화이트 총괄총장은 11일 "아직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을학기 온라인 수업 결정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CSU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3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으며 CSU풀러턴은 최근 가을 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티모시 화이트 총장의 발표에 따라 CSU의 모든 캠퍼스가 가을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티모시 화이트 총장은 "임상간호수업이나 과학 실험, 건축 공학 등 실습이 필요해 온라인 수업만으로 강좌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대면 수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면 수업을 위해서는 개인 보호 장구를 갖추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켜야 한다."며 "학교 차원에서도 캠퍼스 위생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SU의 이번 결정이 다른 대학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을 보여 가을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들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이다.

www.isemusa.com

#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